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평안 제목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마태복음 11장 16-30절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 오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

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16-30)

누가 편히 쉬을 얻는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이다.

누가 편히 쉬을 얻지 못하고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고, 놀아도 재미가 없으며, 먹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 두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첫째는 아무리 해도 편히 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둘째 부류는 너무 간단하게 편히 쉬을 얻는 사람들이다.

첫째 편히 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의 정서는 매말라 있다. 이들은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한다. (요즘은 주름 생길까봐 웃지 못하는 웃지 못할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 ^^)

-이들은 울어야 하는 때 울지 못한다. 눈물이 매말라서 희노애락을 감당하는 기능이 고장났다.

-과거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집안이 그랬다. 함부로 웃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울지 못하게 한다. 그저 근엄하다. 재미 하나도 없이 산다.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들은 비판에 능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자주 금식기도하니 귀신

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와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니 경건스럽지 못하다는 등, 매국노와 어울린다는 등, 정결하지 못하다는 등 말이 많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과감한 행동이 제일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느헤미야 처럼)

-다음으로 편히 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잘못을 깨달으면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도우심을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잘못을 깨달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차라리 자살하려고 하지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다.

-이들은 저주가 예정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다.

-고라신과 벧세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고을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의 정서 중에도 이런 정서가 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도 결코 잘못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가 임하게 된다.

-가버나움은 교만한 고을이다. 이들은 결코 쉬을 얻지 못한다.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편히 쉬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가?

-수고하는 자들이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행동 하는 자들은 그 몸이 거룩하게 된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그 몸이 부끄러워한다. 말을 했으니 움직여야 하는데, 말만 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 몸은 부끄러워져서 그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핑계나, 눈치를 보거나, 다시 꿈꿈이 생각한 다음 자기의 말한 대로 하면 손해날 것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평안한 쉬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말한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쉬을 얻는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편히 쉬을 얻는다.

-이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까지 짊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로 가는 자들만 평안을 얻는다.

-편히 쉬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로 가는 자들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한두달은 교회에 빠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 그러면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삶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는다. 꿈자리가 사납다. 뒤숭숭하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다니면 평안해진다.

-왜냐면 예수님께 가는 자들만 평안을 얻기 때문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평안하듯이, 모든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평안을 얻는다.

-물론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고, 많이 더러워졌으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손과 발은 모두 더러워지는 것이니 손과 발은 꼭 씻어야 한다. (부지불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서 깊은잠을 자지 못하며, 잠을 자도 이내 깨며 울며 보채고 그 심성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돈을 벌수도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누릴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신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받고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된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이 옆어져 있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듯이 내리는 비를 향해 그릇이 누워있어야 한다. 그러면 평안을 얻는다. 믿음을 얻는다.

-신령한 것들, 빛, 사랑, 믿음, 평안, 소망, 영광, 성결함 등등 모든

신령한 것들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다.

-어떻게? 단순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더 이상 마귀의 성품, 그의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가 제일 쉽다. 간편하고 실속있다.

-안전띠가 불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안전띠를 매야 평안하다. 실제로 주행감도 훨씬 안정감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허리띠를 차야 힘이 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진짜 평안을 주신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